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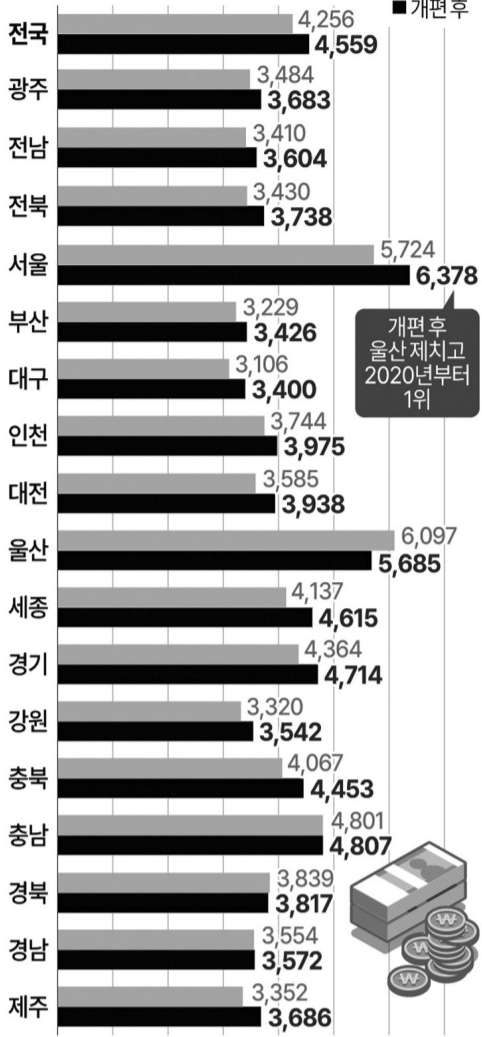
광주 1인당 소득 3683만원...전국 평균보다 1000만원 적어

(지역총소득·2022년 기준)

지역총소득 현황

통계청, 통계의 현실 반영도 높이기 위해 지역소득 통계 기준연도를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

2022년 기준 1인당, 단위: 만원



연말뉴스 자료: 통계청

통계청, 소득통계 개편 결과 발표 광주 1인당 지역총생산 3349만원 부동산 침체에 전국 최하위권 기록 전남 총생산 5417만원...전국 4위

지난 2022년 광주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전국에서 내번째로 높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난 2022년 기준 각 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지역소득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소득 등 경제 규모 등 지역소득 지표가 바뀐 결과다.

지역소득 기준 개편 이후 광주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22년 기준 3349만원으로 대구(2965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고, 전국 평균(4505만원)보다도 1000만원 이상 적었다.

광주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주요 증감 산업을 보면 제조업(4.2%)과 보건·사회복지업(4.4%)이 전년보다 성장했지만, 부동산업(-8.1%)과 건설업(-10.6%)이 대폭 하락했다.

지난 2022년 전남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5417만원으로 울산(7623만원)과, 충남(6447만

원), 서울(5609만원)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에 공공행정(4.7%), 교육업(4.7%) 등 비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민들의 소득별로 보면 광주와 전남이 모두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광주시 1인당 지역총소득은 3683만원으로 전국 평균(4559만원) 대비 19.2% 적었다. 전남은 360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0.9% 낮았다.

다만 지역 소비 성장률에서는 광주시의 소비는 비교적 활발했던 반면, 전남이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소비는 광주시가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전남은 3.6% 성장해 전국 평균 증가율(4.0%)을 하회했다.

광주·전남 총고정자본형성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역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등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을 보면 광주시가 전년 대비 8.3% 감소해 강원(-10.2%)과 부산(-9.0%)에 이어 세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같은 기간 전남은 3.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통계청의 지역소득 개편 이후 전국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6.1% 확대됐다. 최종소비지출은 7.3% 늘었고, 총고정자본형성과 지역총소득은 각각 4.6%, 6.0% 증가했다.

지역소득은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소득자료로, 사·도 단위로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로, 지역소득이 개편된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일곱번째다. 통계청은 직전 기준년인 2015년과 달랐던 경제구조, 기초자료, 분류체계 등을 반영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GDP 역성장에 국민소득도 감소

실질 국민소득 전분기 대비 1.4% ↓

올 2분기 실질무역순실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적 소득이 전분기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도 건설투자 및 정부소비의 부진으로 0.2%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1.4% 감소했다. GNI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총합을 뜻한다. 이번 실질GNI 감소는 3분기만의 감소 전환과 더불어 지난 2021년 3분기(-1.6%)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큰 감소치를 기록했다.

올 2분기 실질GNI 감소치가 컸던 것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실질무역순실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질무역순실액은 올 2분기 11조 3000억 원에서 16조 6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차이인 실질 국외순

수취요소소득은 5조 9000억 원에서 4조 4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해 지난 2022년 4분기(-0.5%) 이후 6분기만에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0.8% 증가했지만, 건설업이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줄어 6.0%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소비가 0.6% 늘었고, 수출(1.2%), 수입(1.6%)이 증가했지만,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고, 건설투자(-1.7%), 설비투자(-1.2%) 등이 줄었다.

국내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했다. 지난 2002년 4분기(4.8% ↑)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2분기 총저축률은 35.2%로 전기 대비 0.1%p 올라갔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0.9%)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0.7%)을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총투자율은 30.7%로 전기 대비 1%p 상승했으며, 국외투자율은 4.5%로 1.1% 떨어졌다. /장윤영 기자 zjang@

경기 회복세? 높은 생활물가에 체감경기는 침체

수출·내수 불균형에 체감 어려워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도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김윤재 조사역은 5일 블로그에 게시한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한은은 먼저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은 전반적인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고용가중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지속해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체감 경기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기 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한 점을 꼽았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국내 설비투자 필요성을 약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대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표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다.

한은은 또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와 30~40대 가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점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0년 이후 30~40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높은 가계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해당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30~40대 가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산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한 가지 배경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점 또한 체감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체감 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의 균형발전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쌀국수·도넛으로 아침밥 간편하게"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5일 초당대 학생회관에서 대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쌀국수와 쌀도넛 등 쌀 가공식품을 배부했다.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남농협은 국민 모두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캠페인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함께하는 100년 농협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일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